

정조국 광주FC 입단...상위 스플릿 '정조준'



'기회의 땅' 광주에서 제 2의 축구인생을 시작하게 된 공격수 정조국이 광주 유니폼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2003년 데뷔 후 84골·'대하리 MVP' 김민혁도 가세... '최강 공격력' 갖춰

목마른 베테랑이 '기회의 땅' 광주로 왔다. 국가대표 출신의 베테랑 공격수 '패트리엇' 정조국이 광주 FC 유니폼을 입었다. 정조국은 11일 FC 서울의 후배인 미드필더 김민혁과 함께 광주로 이적을 했다. 정조국은 대한민국의 톱클래스 공격수다. 청소년 시절부터 U-17, U-20, U-23 대표를 거치며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성인 국가대표팀에서도 간판 스트라이커로 맹활약했다. 2003년 서울의 전신인 안양 LG에서 프로에 데뷔한 그는 첫 시즌에 12골을 터뜨리는 등 정교한 슈팅 능력과 뛰어난 득점 감각을 선보이며 '패트리엇'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국내 리그 통산 275경기에서 나와 84차례 골망을 흔들었다. 이는 현역 선수 가운데 K리그 역대 통산 4번째로 많은 골이다. 정조국은 2011년 FA자격으로 프랑스 AJ오세르와 AS남시에서 1년 6개월간 활약했으며 이후 국내로 복귀해 전정 팀인 서울과 안산 경찰청에서 그라운드를 누볐다. 서울의 얼굴로 지내왔던 정조국의 이적. 광주의 사령탑 남기일 감독의 '진실함'과 정조국의 '목마름'이 통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남기일 감독은 선수군에 빠졌다. 팀을 대표하던 선수들이 군입대와 이적으로 대거 빠지면서 원점에서 다시 새 판을 짜야했다. 그러나 어려운 팀 상황 속에서도 승격과 잔류의 역사를 이룬 남기일 감독의 목표는 확고했다. 클래식

잔류를 넘어 '안착'을 이루겠다는 목표, 그 목표의 중심에는 베테랑이 있었다. 남기일 감독은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선수들의 입단 이탈에 대해 "선수들의 입장은 이해된다. 더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하고 싶고, 대우를 받고 싶을 것이다. 이런 과정은 반복이 될 것이다. 자부심을 가지고, 더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될 수 있는 선수들이 생길 때 팀이 더 강해질 것이다"며 "선수는 그라운드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라운드에서 뛰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베테랑 선수들의 영입을 준비하고 있다. 경험 있는 선수가 와서 광주의 옷을 입고, 팀을 클래식 리그에 안착시켜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남기일 감독의 머릿속에 담겨있던 인물 중 하나가 정조국이였다. 남기일 감독은 베테랑의 힘을 강조하며 정조국의 마음을 두드렸고, FC 서울의 화려한 라인업 속에서 조금씩 입지가 좁아져 가던 정조국은 그라운드에 대한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남기일 감독의 손을 잡았다. 정조국은 "광주는 아직 어렵고 배고픈 팀이다. 그만큼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책임감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올 시즌이 실례기도 한다. 그라운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조국의 합류로 광주는 역대 최강의 공격력을 갖추게 됐다. 여기에 정조국과 함께 동지를 옮긴 김민혁에 대한 기대도 크다.



김민혁

지난 시즌 자유계약으로 서울에 입단한 김민혁은 2009년 고교 아시아 학생 대표, 2014년 대학축구 U리그 왕중왕전 최우수 선수(MVP) 등으로 이름을 알린 유망주다. 위협적인 드리블, 예리한 패스, 높은 골 결정력이 장점으로 꼽히는 김민혁은 지난 시즌에는 6경기에 출전해 왕성한 활동량과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 김민혁은 "아직 어렵고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광주가 원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악물고 해볼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회 왔는데...90분간 '빈 손'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오른쪽)이 11일 영국 런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FA컵 64강 레스터시티와의 홈경기에서 존 스톡과 공을 다투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풀타임 뛰고도 공격포인트 못 올려...팀 2-2 무승부

'손사인' 손흥민이 7경기 만에 선발출전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레스터시티와 무승부를 기록했다. 토트넘은 11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화이트하트레인에서 열린 2015-2016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64강 레스터시티와의 홈경기에서 2-2로 비겼다. 손흥민은 풀타임을 뛰었지만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다. 이날 토트넘은 팀내 최다 득점자인 해리 케인은 물론 델리 알리와 에릭 라멜라 등 주력 공격진을 벤치에 앉히고 손흥민과 나세르 샤흐리 등에게 선발 기회를 줬다. 올시즌 리그 '돌풍의 핵'인 레스터시티 역시 정규리그 득점 선두 제이미 바디(15골)가 사타구니 부상으로 결장했고 리야드 마레즈도 교체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은 전반 8분 사들리가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때린 슈팅이 키퍼 편칭에 맞

고 나오자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오르발로 낮게 깔아차면서 선제골을 넣었다. 레스터시티는 그러나 전반 19분 코너킥 찬스에서 바실레프스키가 헤딩슈팅, 동점골을 만들었다. 레스터시티는 후반 교체투입된 일본인 공격수 오카자키 신지가 후반 3분 역전골을 성공시켰다. 신지는 페널티지역 좌측에서 문전으로 쇄도, 수비 2명을 제치고 슈팅을 날렸지만 키퍼에 막혔다. 신지는 포기하지 않고 키퍼에 맞고 나온 공을 원발로 때려 골대 안에 집어넣었다. 토트넘은 후반 44분 핸드볼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 찬스에서 케인이 득점하며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손흥민은 전반 18분 사들리가 연결해준 공을 물고 문전으로 쇄도해 들어갔지만 수비 태클에 막혀 슈팅까지 연결하지 못했다. 2분 뒤에는 공격진영에서 공을 빼앗아 에릭센에게 연결했지만 에릭센의 슈팅이

키퍼 편칭에 안겼다. 손흥민은 후반 들어 공 잡는 횟수를 늘리며 후반 9분과 13분, 페널티지역 우측과 좌측에서 각각 슈팅을 날렸지만 수비에 막혔다. 양팀은 재대결을 통해 FA컵 32강행 주인을 가리게 됐다. 리그 2위인 레스터시티와 4위인 토트넘은 사흘 뒤인 14일 오전 5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EPL 21라운드에서 다시 맞붙는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첼시는 FA컵 64강에서 스킨스프를 2-0으로 꺾었다. 첼시 디에고 코스타는 전반 13분 문전에서 올라온 브라니슬라프 이바노비치의 크로스를 원발로 살짝 갖다대면서 선제골을 만들었다. 이어 루벤 로프터스-치크가 후반 23분 문전으로 낮게 연결된 공을 원발로 깔아차며 추가골을 터뜨렸다. 히딩크 감독은 성적 부진에 허덕이던 첼시 사령탑을 맡은 후 5경기에서 3승2무를 기록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오승환 세인트루이스 입단...연봉 370만달러 예상

한국과 일본프로야구에서 최고 마무리로 활약한 오승환(34)이 미국 메이저 리그 진출을 눈앞에 뒀다. 오승환은 이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입단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테스트를 통과하면 계약이 성사된다. CBS 스포츠는 소식통을 인용해 오승환이 11일 세인트루이스 구단의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MLB닷컴도 "오승환이 세인트루이스 셋업으로 뛰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승환은 10일 미국으로 출국했고 세인트루이스에 도착하자마자 메디컬테스트를 받았다. 몸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오승환은 세인트루이스에서 새출발한다. 계약이 성사되면 오승환은 구대성, 이상훈, 임창용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한국과 일본을 거쳐 미국에 진출하는 선수가 된다. 지난달 18일 광에서 개인 훈련을 시작한 오승환은 지난주 한국으로 돌아왔고 미국 출국을 준비했다. KBO는 8일 오승환에게 'KBO리그로 복귀하는 시점에 시즌 50% 출장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30일 오승환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오승환이 일본에서 뛰는 동안 원정도박을 했지만, 한국프로야구로 돌아올 때를 가정한 징계를 내렸다. 이 처벌은 해외진출 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 시점'에는 영향을 줬다. 오승환은 지난해 10월 메이저리그 진출 의사를 밝혔고, 복수의 메이저리그 구단이 오승환에게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한국 검찰이 오승환에게 내릴 징계 수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을 마무리할 수 없었다. 12월 30일 검찰이 벌금형을 확정하면서 계약이 급물살을 탔다. 1월 8일 KBO가 내린 징계는 KBO리그에서 몇 시간도 효과가 있는 처벌이라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승환은 세인트루이스 등 미국 구단과 협상하며 '연봉 300만 달러'와 '메이저리그에서 뛰 수 있는 환경'을 조건으로 내밀었다. 세인트루이스는 오승환이 요청한 조건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어떤팀

- 창단** 1882년(미메리칸 एस시(메이선 소속))
- 소속 리그** MLB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 구단명** 세인트루이스 브라운 스타킹스(1882), 세인트루이스 브라운스(1883~1896), 세인트루이스 퍼펙티스(1899)
- 주요성적**
 - 월드시리즈 통산 11차례 우승(1900년 이후)
 - 내셔널리그 19회 우승, 지구 우승 13회
 - 2015년 100승 62패, 승률 0.617의 성적으로 지구 5개 팀 중 1위
- 주요 선수** (2015년 성적)
 - 우익수: 제이슨 헤이워드(27)
 - 154경기 타율 0.293, 홈런 13, 타점 60
- 감독** 마이크 매서니
 - 1970, 9.22 출생(미국)
 - 2012년 카디널스 감독 부임 이후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기록
- 홈 구장** 부시 스타디움(2006년~) 수용 인원 46,800명

류현진 출국 "오승환과 맞대결 기대된다"

"재활과정 순조...선발 합류 1차 목표"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29·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이 올 시즌 가장 대결이 기대되는 한국인 메이저리거로 오승환(33)을 꼽았다. 류현진은 11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경기가 가장 기대된다"며 "타자와 시합을 하면 서로 부담스럽게 때문에 투수와 붙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오승환 선수는 잘하는 선배이기 때문에 따로 조언을 할 말이 없다"며 "지난해 강정호(피츠버그)에게 얘기했듯이 팀 선수들과 친해져서 빨리 적응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류현진은 지난해 왼쪽 어깨 수술을 받은 한 차례도 마운드에 서지 못했다. 그는 "몸 상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현재 40~50m 정도를 던질 수 있는 수준이다. 재활은 단계별로 문제없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시범경기 출전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류현진은 "조급하게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캠프에서 같이 맞춰서 훈련하면 시범경기 출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발 로테이션 합류가 첫 번째 목표다. 목표를 달성하면 아프지 않고 한 시즌을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